

♡♡소식란♡♡

**선교회 특별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서연희 집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이예사리 사모 인도, 신은혜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조미경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이문웅 장로(색소폰)
-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안혜진 집사 반주
-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Jeannie Hwang 선생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and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 County Manor Rehabilitation..... 김금화 집사 인도, 이연옥 반주, and Healthcare, Tenafly 이문웅 장로(색소폰)
-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터 양 전도사 설교, 최성아 집사 반주
-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박미경 집사 반주
-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진 집사, Rockleigh 최수현 집사 반주
- Buckingham at Norwood Care and....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Rehabilitation Center, 은혜 양로원  
Oakland Rehabilitation & ..... 정준임 집사 인도, 한자경 집사 반주 Healthcare Center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New Milford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박경옥 권사, 신용자 권사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김순희 권사 반주,
-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150:6)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6년간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길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 Scholarship Awards
- Mail to :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Debor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추가: Kenny Yoon, 송희수

총수입: \$10,450.00 총지출: \$4,500.00(장학금 수여)

◇◇ 선한이웃 선교회 행사 일정 ◇◇

- 11월 12일(토): Paramus Cupola 앙상블 연주
- 11월 13일(일): Cresskill Sunrise 앙상블 연주
- 11월 26일(토): 한소망 요양원, Oakland 앙상블 연주, 2:30pm  
히스패닉 이웃 추수감사절 사역 앙상블 연주, 7:30pm
- 12월 3일(토): Rockleigh Bergen Health Center 앙상블 연주
- 12월 6일(화): 선한이웃 선교회 이사회  
Closter Tree Lighting 앙상블 연주, 8:00pm
- 12월 10일(토): 은혜가든 양로원, 앙상블 연주
- 12월 11일(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앙상블 연주
- 12월 17일(토): Emerson Armenian 앙상블 연주
- 12월 20일(화): 앙상블 Christmas Party 오후 6시, 아콜라 교회
- 12월 29일(목): 설봉 장학금 수여식, Double Tree Hotel 앙상블 연주
- 12월 27일(화): 1월 3일 (화): 앙상블 Winter Break: No rehearsal
- 1월 15일(일): Old Tappan Sunrise 앙상블 연주
- 1월 21일(토): Oradell 앙상블 연주
- 1월 28일(토): Westwood Care One at Valley 앙상블 연주
- 6월 17일(토):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7:30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Ridgewood, NJ)

2016년 10월 ~ 12월 / 제98호  
http://www.goodneighbor.org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림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 이니라 (로마서 12:1)

**A Christmas Story**

I have always felt sorry for those whose birthdays were around Christmas. Very often, they would be gypped out of a present since they would receive one gift that fulfilled both purposes.

And thankfully, every Christmas as a child, being that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born in the summer, there was no birthday/Christmas present for me. Just Christmas. Nevertheless, I don't know if it's cultural, but I would rarely receive any of the trending gifts that many of my classmates would brag about receiving from Santa. I was given at every Christmas, more or else, clothes, coloring books and socks. "Another year resulting in being naughty," I often sighed to myself.

I do, however, recall receiving a Cabbage Patch Kid one year. I think I was either in the first or second grade. (For those who don't know what a Cabbage Patch Kid is, it was the doll that every girl wanted in the 1980's. It even came with a birth certificate, and you knew if it was authentic by the signature written on its behind.)

I still remember so clearly all the emotions I felt that day. I was ecstatic, elated and beyond words upon seeing this doll. However, for some reason or another, my parents got into an argument hours later. They told me to go upstairs to my room. I heard them getting into a shouting match. Still holding onto my Cabbage Patch Kid, I ran to my bed and hid beneath the covers. I started to pray. I told God that I would rather have my parents not fight than to have this doll. I wanted peace.

I don't exactly remember how the day ended. I probably fell asleep. Regardless, this incident is a reminder and a blessing, in hindsight, that even at a young age, I knew that no material possession could ever truly gratify the desires of the human heart and soul.

And this is Christmas- the story of how true peace came into the world. We were reconciled with Our Maker through Christ, Our Prince of Peace. Through Christ's humility by being a babe, who didn't even have a crib to lay his head, the riches of Heaven, and most importantly, Our Heavenly Father was made known to us.

My brothers and sisters at the nursing home know this. They know that nothing here on earth can fully satisfy their needs. There is only a someone, and this someone is Jesus. I see a hunger in them for Christ, and I am most humbled and grateful that I can partake in worshipping our King together with them each week.

Christmas 2016 is nearly approaching. I don't know what is written on your Christmas list. Regardless of what you receive (or don't receive), may you be encouraged that the God who gave us his everything, is both the perfect gift and the gift-giver. Only He can satiate any and every appetite we have, and indeed, He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Maria Kim  
Armenian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 뉴저지의 선물

언젠가부터 작은 노트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써왔다. 혹시나 훗날 펼쳐봤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뉴저지에 첫 발을 디딘 2011년 6월. 나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뉴저지에서 세 번째 미국 생활을 맞는다. 남편 업무로 이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와 샌디에고에 있었다. 당시 평생 내가 의지할 영적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뉴저지에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동부의 뉴저지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캘리포니아와는 사뭇 달랐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인사를 건네면 나를 보고 오히려 멋 적어 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서울 못지않게 사람들이 분주하고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리고 한인들도 편하게 맘을 풀어내기에는 어려워하는 듯했다. 여러 사람들과 겪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던 차에 한국 소망교회에서 대학 부를 같이 섬기던 후배의 인도로 노우드 요양원을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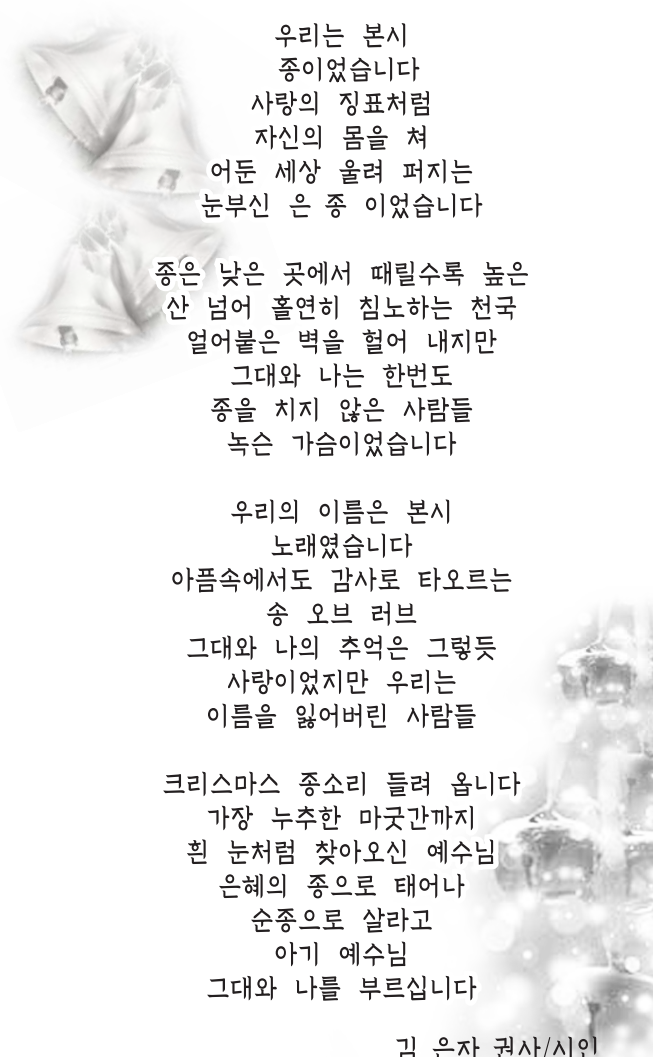
나는 첫날 떨리는 맘으로 노우드 요양원에 출석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정아 난 네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이후 내 가슴 속 깊이 매주 수요일은 양로원을 가는 날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과 모임약속 스케줄을 잡을 때도 "수요일은 양로원 가는 날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잠시 체류하면서 봉사도 하세요?" 라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난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할 때 내심 창피해진다. '그곳은 제가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라고 혼자서 중얼거리게 된다. 그저 거기서 그 영혼들과 같이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었다.

짧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저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은사일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부업봉사를 하는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이에게, 노인에게, 미혼모에게 또는 40대에게 각각 다를 것이다. 나는 환우와 천국 문턱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구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너무 딱해서 기도가 막 나온다. 그 분께 미안하지만 '주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잘 안 나온다. '주님 저 영혼 주님 만나기 전에 깨끗이 씻김 받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만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육이야 썩어 죽었지만 저들의 영은 꼭 천국에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노우드 요양원은 중병 치매병동으로 거하는 노인들에게는 그곳이 이 땅에서 마지막 거처였다. 그렇게 귀한 여장에서 나더러 "의정아! 너, 이곳에서 나를 위해 큰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해줄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줄래."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선물 같던지 감사할 뿐

## 은 종

- Silver Bell, 가장 누추한 마굿간까지 -



우리는 본시  
종이었습니다  
사랑의 징표처럼  
자신의 몸을 쳐  
어둔 세상 올려 퍼지는  
눈부신 은 종 이었습니다

종은 낮은 곳에서 때릴수록 높은  
산 넘어 홀연히 침노하는 천국  
얼어붙은 벽을 열어 내지만  
그대와 나는 한번도  
종을 치지 않은 사람들  
녹슨 가슴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본시  
노래였습니다  
아픔속에서도 감사로 타오르는  
송 오브 러브  
그대와 나의 추억은 그렇듯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크리스마스 종소리 들려 옵니다  
가장 누추한 마굿간까지  
흰 눈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의 종으로 태어나  
순종으로 살라고  
아기 예수님  
그대와 나를 부르십니다

김 은자 권사/시인

이었다. 나는 비록 1시간뿐이지만 그곳에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 목이 터져라 주께 찬양을 드렸다. '주님! 이곳에 앉아 있고 누워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을 깨워주셔서 그 영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꼭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이다. 그곳에 계시는 노인들의 영이 치열하게 어둠과 빛의 세계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찬양도 거의 부르지 않고 멍한 상태일 때가 많았다. 그럴수록 나는 큰소리로 찬양을 불렀다. 혹시나 그 시간 그들을 부르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의 피로 덮음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인 그곳에 잘 도착해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그곳에 있으면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노인들을 보기도 했다.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며 껍떡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 예배 중에 마구 춤추거나 아직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서 막 고집을 피우는 노인들. 그들의 막무가내의 행동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어 예배를 진행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막무가내 식의 행동이 잠잠해진 날에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저들이 왜

## ♡소식란♡

### 선교회 특별활동

- \* 2016년 연말 사역은 12월 23일(금)까지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 \* 2016년 1월 6일(화), 11:00 am에 포트리 베다니 교회에서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430 Main St. Fort Lee, NJ)
- \* 2016년 새해 사역은 1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을 맞이하여 각 양로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이 있었습니다. (선물로 스카프와 양말을 준비해 주신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이사 임명- 선한이웃 선교회 새 이사로 고현미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새 가족이 됨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활약과 기도 후원을 기대합니다.
-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uTube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Type 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Subscribe 하셔서 앞으로도 새로 올라오는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선교회원 동정

- ◇선교: 이문웅 장로/이명옥 권사(Guatemala), Alisa Lee 사모(Haiti), 박성길 선교사(필리핀, 미얀마, 한국)
- ◇고국 방문 및 여행: 니콜 오(캘리포니아), 박경옥 권사(중국) Susan Lee, Sean Lee(encephalitis 투병)-San Diego
- ◇장례:\*지난 17년을 선교회와 가까이 함께 봉사하셨던 임정은 교수님께서 10월 13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Amanda Bae의 시아버님께서 지난 10월 30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피아노 기증: 김혜숙(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이미영(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 ◇11월 17일 맛있는 음식으로 은혜 양로원의 환자들과 스태프를 섬겨주신 주앤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11일 버겐 병원 내 정신 병동에서 귀한 연주를 해주신 김유식 집사님(Cello)께 감사드립니다.
- ◇장수영권사, 조경희권사 한미예술인협회 그룹 전시회, Flushing Town Hall, 11월 8일~11일 18일
- ◇컨서트: 배경미 집사, D Ensaemble(French Salon de Concert), 12/2, 7:00 pm, St. Andrew's Episcopal Church, Harrington Park

### 후원해주신분들(2016년 9, 10, 11월)

서연희, 송희수, 윤희주, 베다니교회, 초대교회, 한인장로교회, Joy Church  
수입: \$9,460.00 지출: \$5,763.50

\*음악회 수익금 해외 선교 지출: \$16,000.00  
아이티(학교 보조, 의료 사역), 캄보디아 장애인 사역, 순회 선교

### 기도란

-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
  - ◆ 새로 시작한 한소망 양로원 사역을 위하여
  - ◆ 2016-2017 양상블 새 단원들을 위한 기도
-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신용자  
장 로 : 박성길  
집 사 : 김진옥, 정준임, Brenda 조,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Maria Kim, Jeannie Hwang  
전도사 : 니콜오,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Metro Church Member

- † 선교사를 위하여  
이강휘 목사(아이티), 박성길 장로(순회선교사), 이문웅 권사, 이명옥 권사(과테말라), 박문희 집사(해외선교)

- † 건강을 위한 기도  
강신익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따님),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수술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토니 장 집사(눈수술 회복) 크리스티나 장 집사(허리수술 회복) Jane(암 투병/Nicole Oh 전도사님 친구)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선한이웃 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Power of Music

Music has always been a way for u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from the rich, intricate musicality of the Baroque period to the expressive pop music we listen to today. Music has also been a part of my lif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whether it was playing Maria in my middle school production of *The Sound of Music* or partaking in selective high school choirs. Although I have created precious relationships with new friends through such musical activities, delivering the music rarely made an impact on my understanding of its indescribable power. It was not until I joined the Good Neighbor Ensemble that I came to understand music as being so much more than mere scribbles on paper.

The Good Neighbor Ensemble is a selective group of talented young musicians who have a passion not only for music, but also for serving others. With relationships with over a hundred senior citizen homes, the Good Neighbor Ensemble's mission is to share love and hope with others through the healing power of music. When I first joined the Ensemble, I had just learned how to play the viola, and as a beginner, I was nervous about my performances. I would tirelessly attempt to perfect the complicated fingerings and nail the dynamic volume changes. But my fears of plucking the wrong strings or drawing the wrong bowing dissipated one day when we performed *Amazing Grace*.

As the cellos played the rich melody, I saw one woman gasp and put her hand on her heart, singing the lyrics passionately. A man seated in the front, clasped his trembling hands together and lovingly looked at each of us with tears in his eyes. I started to tear up myself, and as my vision blurred, I could not make out some of the notes and fingerings marked on the sheet music. But when we held the last note of the song, I knew this performance was the best we had ever had.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 and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Ephesians 5:18-20) God uses and moves us in mysterious ways. In special moments like these, our praises to God can transport us to a different place, a different time, perhaps even – a different life. Through my involvement with the Good Neighbor Ensemble, I realized I can help bring these senior citizens joy and allow them to experience God's love again. It is a blessing to serve God and His people by doing something I love.

Yuna Chung / 12th  
Good Neighbor Ensemble



<Korean Chuseok Festival at Overpeck County Park, NJ>

저리 잡잡할까, 우울증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이 없이 멍할까, 아니면 뇌가 이상해져서 끝 날이 다 온 것일까' 하면서 말이다. 노우드 요양원은 정말 짧은 글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집사님들, 그곳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윤 장로님, 말없이 성실히 섬기시는 피아노 집사님,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섬기시는 오 집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닳고 싶을 만큼이나 예수님처럼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정준임 집사님,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필요 없이 너무 귀한 막내 현주씨. 그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못 만났을 천사 같은 분들이다. 난 그곳에서 장로님을 뵈오며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보았고 정준임 집사님을 보면서 평신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선한 이웃 선교회는 결단코 내가 봉사한 곳이 아니다. 내가 섬김을 받은 곳이다. 바로 주님이 5년의 뉴저지 생활에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곳을 통해서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 짧은 캘리포니아 생활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선물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면 이곳 뉴저지에서는 주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 높은 선물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 '아 이것이 이번 미국 행의 선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다.

노우드 요양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 'Jesus Loves Me' 을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듣건 말건 그들의 귀에 대고 말해주었다 "Jesus Loves you !!"라고 . 그들의 영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In his times' 를 부르면서 그들이 묶인 육체에서 풀려 이 땅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져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서는 날을 상상하며 축복해 보았다. 그곳에서 만난 환자들, 봉사자들의 출석을 일일이 체크하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피터, 소리를 꺾꺾 지르며 큰소리로 찬양을 부르던 유태인 할머니,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무엇인가 밝음과 어두움의 세계를 오락가락하며 기도하고 있는 듯한 천사 같았던 할머니, 또 예쁘게 화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딸이 방문하는 날이면, 딸에게 예쁘게 화장을 받으며 행복해 하는 할머니, 한때는 시장이었다고 하시면서 권위자의 모습을 살짝 보이셨으나 급속히 건강이 안 좋아지신 할아버지, 수줍은 미소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예쁘게 머리를 땀은 아프리카인 할머니. 그리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봉사한다는 한국양로원병원 봉사자 등이 생각한다. 그들과 언젠가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에서 다같이 모여서 찬양드릴 수 있을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 제가 그들과 함께 수요일 노우드 요양원에서 10시30분에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제가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두 이곳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게요" 라고 자랑할 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이 땅에서 주님께 뭐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헉헉 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저 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감옥에서 해방된 탈옥된 의인이다. 어쩌다가 귀찮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주신 의의 가죽옷을 확 벗는 날이면, 난 영락없이 나의 옛모습인 죄성이

드러나 다시 죄수가 되는 것 같다. 이렇듯, 천국에 입성하여 상주시는 분 앞에 서는 그날, 상 하나라고 받을 것이 없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상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날 보내주셨으니, 어찌 내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 지금 이 시간, 그곳에 있는 노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축복해 본다. '주님 그들의 육이 어떠한든지, 어떠한든지 그들의 영이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5년의 뉴저지 생활을 정리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은 좀더 많은 양로원을 섬기지 못한 것이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매일매일 오전엔 그 죽음의 문턱에 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같이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새, 믿기지 않지만 내 나이 50세를 바라보며,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한다.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른이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말이다.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주위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고 어른은 그저 존재 그 자체가 존경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20대, 30대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40대 들어선 느리게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들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것 같다. 노우드 요양원에서 내가 받는 또 다른 축복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 역시 분명히 언젠가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아침에 그곳에서 나의 창조자이면서 심판관이신 주님 앞에 분명히 설 터인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칭찬 받을 만 할까?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의 성적표를 들고 천국에 입성할 것도 아닐 것이고 은행계좌나 소유한 땅을 들고 가지도 않을 터인데 말이다. 그날 아침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천국, 그 문에 내가 도착했을 때 뉴저지 요양원에서 같이 찬양예배를 드렸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양 갈래로 줄을 지어 서서 나에게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드디어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아니" 라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나를 죄인 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나를 꾸짖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가시는 분이시이다. 그곳에 있는 노인들을 아마도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볼 것이다. 그러나 그곳의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억이 날 때마다 기도할 것이다. 나도 그들이 먼저 갈 그 곳에 꼭 잘 도착해서 천국 문을 박차고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6절, 12장 2절)

황의정 집사  
Buckingham at Norwood Care and Rehabilitation Center

Photo Gallery / GNM



Photo Gallery / GNE

